

이즈모의 고대 다타라 제철 유산

이곳 주고쿠 지방(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야마구치현)에서는 1000년 이상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다타라 제철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철의 기본 원료인 사철과 목재를 풍부하게 채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곳에서 철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때 이 지역의 제철업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제철 산업은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자연 환경에 크고 뚜렷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은 일 년 내내 이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철과 목재 등 제철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목탄 생산에 필요한 목재의 경우, 계획적인 벌채를 통해 산림을 재생시켰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산업의 영향에 따라 지형이 영구적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대규모로 사철을 채취하면서 산 전체가 평평해지고, 그렇게 평평해진 자리는 농업용 계단식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는 야스기시, 운난시, 오쿠이즈모초에 걸치는 3개의 시정촌에 분포된 유적이 다타라 제철의 문화 거점지로서 함께 일본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야스기시에 있는 와코 박물관과 가나야고 신사 외에도 운난시의 스가야 다타라 산나이(제철소 주변 마을), 오쿠이즈모의 닛토호 다타라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근 다타라 제철의 유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전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